

“사업실패로 돈도 건강도 아내도 잃었습니다.”

- 실의에 빠진 이상현(가명)님의 이야기 -

화장품 사업을 하셨던 이상현(가명)님은 하루에 100만원 이상 쓸 정도로 한 때는 잘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. 그러나 무리한 사업확장과 믿었던 친구의 배신으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맙니다.

사업실패로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. 달라진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상현님은 교도소 수감 생활 중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 평소에도 좋지 않았던 시력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.

힘든 나날 속에 하루에도 몇 번 씩 죽고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 중학생인 딸 예은(가명)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. 하나 남은 자식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父情이 생명의 끈을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.

이상현님이 시련을 딛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.



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상현의 생계비로 지원되며
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청장년들의
자립과 자활을 위해 사용됩니다.

후원문의 : ☎ 02-3396-1004